

## 종합·해설

### 여야 대권주자들의 '호남 구애'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농촌체험 관광마을인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회답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시 농촌체험' 박근혜

### "땀 흘린 농촌, 헛되지 않게 하겠다"

◇박근혜, 나주시 농촌체험=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나주시를 찾아 한우직판장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방문, 농어촌 발전 방향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당직자와 지자 등 70여 명과 함께 농촌체험 관광마을인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회답마을을 찾아 체험 교육장을 찾았고 농민들과 접점식사를 함께하며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방안과 농업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전라도 사투리까지 써가며 호남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강화에 주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주민들을 만나 "땀 흘려 노력하는 농촌에 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이 농촌의 현실과 따로 되지 않도록 힘

쓰겠다"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농촌에 대한 단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화답마을은) 농촌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주민들은 "브로커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밝히며 "KTX가 나주역을 통과할 수 있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호남서 1박2일 민심 짚기=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5일 "김대중 정신과 광주정신이 살아 있는 광주에서 새로운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어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후보는 16일 예정된 이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의 호남민심 짚기를 끊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전주에서 각각 호남 민심 행기기에 주력했다.



15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북 콘서트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30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서 1박 2일' 손학규

### 광주선언 발표...해저터널 등 공약

과 지자체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북 콘서트를 갖고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광주선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숨 바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운 위대한 성지,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는 곳, 민생과 복지의 시대를 열고 남북 평화,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낸 평화의 성지 광주에서 정권교체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을 시민들 앞에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5년 전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에 500만 표가 흘러 넘는,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표차로 정권을 내준 것은 민주세력이 민생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빼앗긴 뒤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국민의 거칠난 살림살이를 일으키고 상처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며 사

실상 참여정부의 핵심 멤버였던 문재인 상임고

문을 겨냥했다. 손 고문은 "민주당의 실패는 저를 비롯한 민주세력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 고문은 이날 광주은행 노조가 주최한 '광주은행 분리매각 민영화'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리금융을 매각하면서 우리금융 계열사인 광주은행을 일괄 매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적절한 처사"라며 "광주은행과 우리금융의 일괄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또 지난 14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아 시장상인들과 폭넓은 교감을 가졌다.

손 고문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고장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렵다"며 ▲부안공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제주~목포 간 해저터널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통합진보 새 당대표에 강기갑



강기갑 대표 윤민호 시당위원장 유현주 도당위원장

통합진보당 강기갑 후보가 15일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또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 전남도당위원장에는 유현주 후보가 각각 당선했다.

통합진보당은 9~14일 당대표, 최고위원, 광역시도당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동시당직선거 당원투표를 실시,

이날 당선자를 발표했다. 당원 투표는 인터넷투표와 현장투표, ARS 모바일 투표 등으로 진행됐다.

신당권파의 강 후보는 이번 선거에

서 2만861표(55.8%)를 얻어 1만6479표(44.2%)를 얻은 구당권파의 강병기 후보를 누르고 대표로 당선됐다.

강 신임 대표는 "저의 당선으로 혁신을 바라는 민심과 담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감한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경선 룰' 갈등 격화

#### 결선투표·국민배심원제, 문재인-손학규·정세균·김두관 격돌

문재인 상임고문에 맞서 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이 공동 대응전선을 갖추는 등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 간에 경선 방식을 둘러싼 '불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광주인 결선투표제와 국민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 비(非) 문재인' 구도로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정세균·김두관 후보 측 경선를 협상 대리인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투표제와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했

다. 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배심원제 결과를 투표 결과를 1:1:1로 반영하고, 예비경선(컷오프)은 당원 선거인단만으로 구성해 1인2표제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해 추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배심원제는 후보의 자질을 평가할 별도 배심원단을 구성해 이 배심원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들 3명의 후보는 16일 예정된 이

날 경선 후보는 16일 예정된 이

날 경